

미래 건설기술인의 진로 희망 실태분석 및 이미지 개선방안

2021. 06.

신원상 · 오치돈 · 곽한성 · 배상희

요 약

■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의 미래 인력수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우선 과제으로써 건설기술인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진로 희망 여부 및 이미지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인력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이를 위해 건설산업에 대한 호감도와 진로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고,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新 이미지 평가키워드를 활용하여 건설 관련 학과 및 비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의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도출하였으며, 국내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향후 국내 건설 관련 기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미지 개선활동의 방향성과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함.

■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산업별 호감도 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21가지 산업 중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는 2위,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는 12위로 조사되었고, 호감도 선정의 부정적 원인은 두 계층 모두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을 많이 유발하는 일이어서”, “뇌물, 비자금 등과 같은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어서”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남.
- (진로 희망 여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의 건설 분야 취업 및 대학원 진학 선택 비율은 각각 22%, 9%로 나타났으며,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의 건설 분야 취업 및 대학원 진학 선택 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미지 평가) 이미지 평가 키워드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이미지 실태를 분석한 결과, 건설 관련 학과 및 비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부정적 이미지는 ‘성실시공’, ‘기업윤리’, ‘근로환경’ 항목에서 나타남.
-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학생에 대한 이미지 개선 활동 전담주체의 불명확 또는 부재”로 조사되었고,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개선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홍보 미흡”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대학생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구축,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함.

■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학생의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과거부터 인식되어 온 이미지로써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래 건설기술인의 수급 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학생의 건설산업 이미지를 토대로 각 기관별 개선활동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기관별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국내와 유사한 건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젊은 인력들이 기피하는 3D산업이며, 이를 과거부터 인지하여 기관별 특성을 살린 활동들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조사된 동영상 제작 및 배포 활동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면 활동 자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간접적으로나마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 현장의 체험활동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의 벤치마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해당 기관별로 시행하고자 하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과거부터 건설산업의 이미지 해결과 젊은 인력 유입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정부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역할에 매우 무게가 실려 있음.
- 따라서 국내에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개선할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고찰	4
II. 新 이미지 평가키워드에 대한 고찰	7
III. 대학생의 진로 희망 여부 및 이미지 실태분석	11
1. 조사개요	11
2. 산업별 호감도 분석	12
3. 건설 분야로의 진로 희망	15
4. 건설산업의 이미지 평가	18
IV.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1. 대학생 대상 이미지 개선활동의 종류	23
2. 이미지 개선활동의 인지도 및 필요성	24
2.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25
3. 벤치마킹 방안	27
V. 결론 및 시사점	31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내 청년층 고용에 대한 문제가 경제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국내 실업자는 121만 5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만 6천명이 증가함.
 - 이 중 청년 실업자는 42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4천명이 증가한 수준임.
 - 이처럼 국가적인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건설기술인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를 보면, 2017년 12월 768,658명이었던 기술인 수가 2020년 12월 기준 859,839명까지 증가하였고, 이 중 617,446명(71.8%)의 건설 기술인이 관련 업종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체 건설기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미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장기 미취업자는 전체 기술인의 24%(209,423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20대의 단·장기 미취업자 수는 2020년 12월 기준 7,738명으로 2020년 6월 기준인 5,587명보다 38.5%가 증가한 수준임.
- 이러한 단·장기 미취업자 수의 증가는 과거 건설산업으로 입문한 건설기술인이 대다수 이탈하고 있는 수치로도 해석됨.
 - 이는 건설기술인의 개인적 사유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 선행연구(Shin & Son, 2017)에서 분석된 건설산업의 ‘성실시공’, ‘기업윤리’, ‘근로환경’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건설산업 내부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청년층 건설기술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발생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음.

■ **건설산업에 대한 고용상의 또 다른 문제점은 향후 건설기술인으로 유입이 가능한 청년층이 건설산업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점임.**

- 최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선행연구(Shin etc., 2021)에서 조사된 사항을 보면, 특정 항목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고등학생들은 타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건설산업의 호감도도 과거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고용 악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건설기술인의 청년층 이탈 방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이슈인 출산인구 저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향후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도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됨.**

-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출생아 수 추정치는 272,400명으로 2011년도 기준인 471,265명보다 198,865명(42.2%)이 감소한 수준임.
- 2020년도 학령인구(대학교)는 2,364천명으로 2011년 기준인 2,700천명보다 336천명(12.4%)이 감소한 수준임.
- 또한, 최근 국내외에서 스마트 도시건설, 친환경 건설 등의 인력 중심이 아닌 기술 위주의 프로젝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분야 건설기술인에 대한 품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는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건설기술인으로 유입이 가능한 대학생과 산업 내 젊은 종사자들의 현재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향후 건설산업의 미래 인력수급 상황에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의 미래 인력수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써 건설기술인으로 진로 선택이 가능한 대학생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진로 희망 여부와 이미지 실태를 분석하고, 그들이 건설산업으로 진출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그림 1-1 참조>).**

- 현재 대학생들은 향후 건설기술인의 잠재적 자원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key-point)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내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유입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대상임.

연구목적

대학생의 건설산업 진로 선택 여부 및 이미지 해결방안

미래 건설기술인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청년층 유입방안)

필요성

청년층의 진출 거부

- ✓ 청년층이 원하는 진로 방향
- 산업별 매력, 흥미, 발전성 등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

- ✓ 부정적 이미지의 개선 필요
- 젊은 인력의 기피 산업(3D 업종 등)



선행연구의 한계점 존재

- ✓ 변화된 최신 이미지 분석 필요
- 과거에 조사된 이미지 및 평가체계



연구내용

청년층의 진로 선택 실태

- 대학생의 진로 선택 여부
- 건설산업으로의 진출 거부 사유

대학생의 이미지 분석

- 건설/비건설 관련 학과 설문
- 산업 호감도, 항목별 이미지 평가

이미지 제고방안 제시

- 개선이 시급한 이미지 항목 도출
- 해외 벤치마킹 방안/정책적 방안

<그림 1-1>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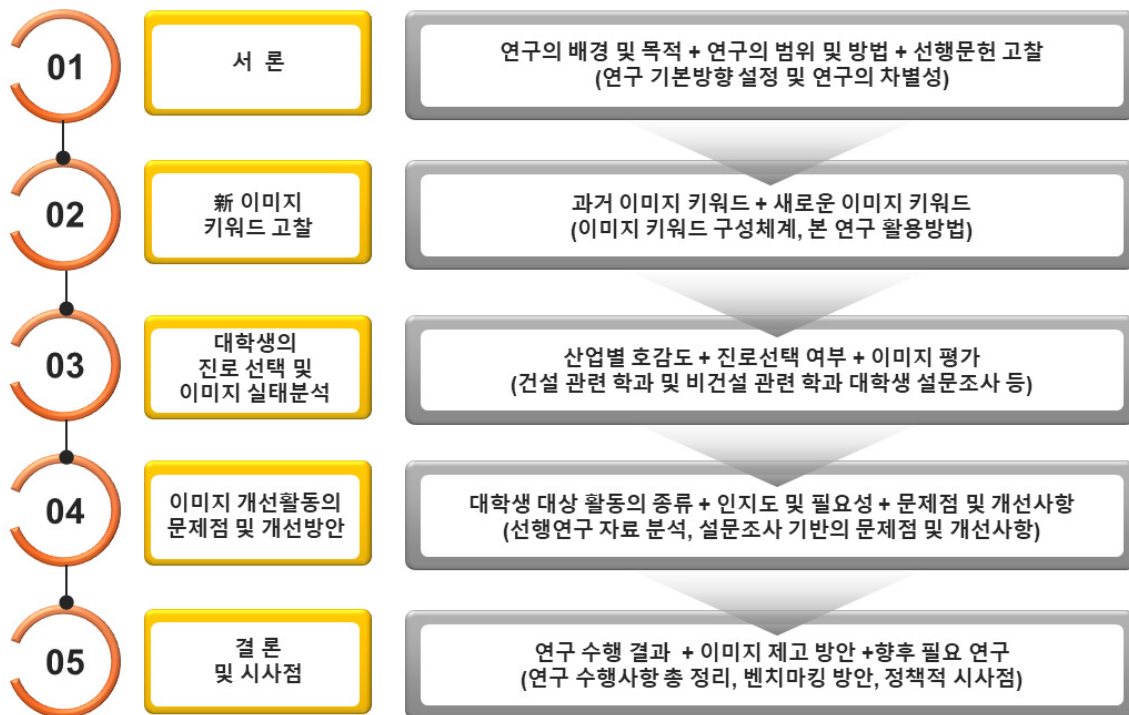
-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으로 진출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산업별 호감도 및 진로 희망 실태를 분석하고, 선행연구(Shin etc., 2021)에서 도출된 이미지 평가키워드를 토대로 대학생의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실태를 분석하며, 이들의 유입을 위해 해결이 시급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연구범위로 한정함.

- 공간적 범위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므로 국내 모든 시·도·군이며, 내용적 범위는 미래 건설기술인이 될 수 있는 국내 건설 관련 학과 및 비건설 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이 내용적 범위에 포함됨.
- 시간적 범위는 자료들의 수집 기간 및 분석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음. 활용된 이미지 키워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2020년도 기준의 자료이며,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자료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조사된 내용임.

-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그림 1-2 참조>).

- 첫째, 국내 통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함.

- 둘째,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新 이미지 평가키워드에 대한 고찰을 수행함.
- 셋째,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조사·분석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함.
- 넷째, 건설기술인의 미래 인력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의 건설산업에 대한 진로 희망 실태와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다섯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대학생들의 진로 희망 및 이미지 실태를 분석하고,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항목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그림 1-2> 연구 방법 및 수행 프로세스

3. 선행연구 고찰

- 건설산업 이미지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고, 개략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과거 키워드 기반의 평가방법론을 제시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표 1-1> 참조).

- 일반인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실태를 분석한 연구(A Group), 건설산업의 유능한 인력이 될 수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지 실태를 분석한 연구(B Group), 건설산업 이미지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C Group), 해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방안을 제시한 연구(D Group),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E Group)로 분류됨.

■ **선행연구들은 과거에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이기에 현재 시점의 이미지를 분석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의 최신 이미지 키워드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또한, 건설기술인의 미래 인력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미지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임.
-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설기술인이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진로 희망 여부 및 이미지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인력수급 부족 및 진출 기피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지 못한 향후 미래 건설기술인인 대학생에 대한 건설산업의 진로 희망 여부 및 이미지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이미지 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 現 시점에서의 대학생 대상 건설산업 이미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건설기술인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표 1-1> 선행연구 고찰

Group	저자	년도	주요 내용
A	Lee & Kim	1995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설업에 대한 국민경제 기여도, 사회적 공헌도, 종사자 호감도, 장래성, 도덕성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취업환경 인식 조사 및 제조업과 비교·분석하여 건설업의 내·외부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단·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Shin & Son	2014	일반인들의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 실태 및 수준을 평가하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이미지 개선활동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미래 건설기술인의 진로 희망 실태분석 및 이미지 개선방안

	Lee et al.	2014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관리직 및 생산직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직업의식 및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건설관련 기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이미지 개선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An & Gwon	2016	시간 경과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건설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함.
	Kim & Kim	2016	건설기술자의 이미지에 대한 일반 국민과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함.
B	Shin & Son	2013	우수한 젊은 기능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 방안으로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활동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방안을 제시함.
	Shin etc.	2021	미래 건설산업의 중요한 잠재 인력자원이라 할 수 있는 공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실태를 現 시점에서 파악하고, 개선이 시급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함.
C	Park	2005	건설산업의 이미지에 대한 영향요인 후보군을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하였고, 일반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된 영향요인들을 카이제곱검정, 상관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영향요인을 제시함.
D	Cho. et al.	2005	선행연구 이의섭(1995)의 대국민 설문조사 분석 자료를 토대로 건설산업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보도 자료를 통해 건설산업과 제조업의 이미지 분석을 실시함. 또한, 일본과 한국의 이미지 개선활동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新 3D”를 통한 국내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기초전략을 제시함.
	Kim et al.	2008	국내 건설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 이미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인 미국, 영국의 이미지 제고활동을 조사하여 분석함.
E	Shin & Son	2014	분야별 전문가들의 면담조사와 국내 대표적인 언론매체의 최근 5년간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미지 평가 키워드를 도출함.
	Shin & Son	2016	일반국민 및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들의 중요도를 도출하여 정량화하고, 다양한 건설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이미지 평가절차를 개발함.
	Shin & Son	2017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반인 및 종사자들의 이미지를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일반인 및 종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와 국내 건설업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활동 효율화 방안의 제시함.

II

新 이미지 평가키워드에 대한 고찰

■ 언론매체 보도자료의 내용은 언론매체의 특성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 및 일반정보 전달 등으로 다양하게 기사화될 수 있음.

- 선행연구(Shin etc., 2021)에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보도내용의 쏠림현상을 배제하기 위해, 국내 종합 일간지 중 보수 또는 진보의 관점이 없고, 건설 관련 기사의 영향력이 가장 큰 e대한경제를 연구대상으로 함.
- 분석된 보도자료의 분야는 건설산업의 정책/제도, 공사계약, 전문/설비, 설계/감리, 엔지니어링, 기술, 자재, 인테리어, 전기/통신/소방, 에너지, 국토개발, 노동/안전 분야와 해외뉴스의 해외건설 분야로 설정함.

■ 선행연구에서 이미지 평가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선택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구대상인 언론매체를 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내용을 심도 있게 전달하고 있고 영향력이 큰 e대한경제 신문으로 선정함.
- 둘째, 언론매체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건설산업의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SNA 기법을 통해 분석함.
- 셋째, 언론매체의 이미지가 실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미지 평가 키워드를 전문가 검증을 통해 제시함.

■ 2020년도의 언론매체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된 건설산업에 대한 최신 이미지 키워드를 종합하여 향후 건설산업의 이미지 평가를 위한 키워드를 제시함.

- 해당 키워드는 과거 선행연구(Shin & Son, 2014)에서 도출한 이미지 키워드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최근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의 신규 트렌드 및 전문가 면담으로 도출된 키워드를 추가하여 분류체계를 재구성함.

■ 최종 도출된 분류체계는 전문가 5인에게 최근 기사들의 키워드를 제시한 후, 각 키워드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 전문가 5인의 자문 결과, 최신 기사로 도출된 이미지 키워드가 전체적으로는 적정하지만 일부 키워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대·중·소 분류체계는 적정하게 구분되었고, 신문 기사의 빈도수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신문 기사의 빈도수는 해당연도의 이슈, 정치적 성향, 기술 개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해당연도의 이슈인 사항을 도출할 때는 활용성이 있으나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어 빈도수를 키워드 선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총 도출된 이미지 평가 키워드는 대분류 3가지, 중분류 9가지, 소분류 35가지의 구성체계로 최종 정리함(〈표 2-1〉 참조).

■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미지 평가 키워드(35가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미지 평가¹⁾를 실시함.

<표 2-1> 새로운 이미지 평가 키워드 도출 과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차도출)	기사 빈도	전문가 선정 키워드					수정·보완 내용	선정	최종 도출 키워드
				A	B	C	D	E			
국가 및 사회 기여도	경제 발전	경제성장	60	○	○	○		○		○	경제성장
		경기회복	1,183	○	○	○	○	○		○	경기회복
		해외건설수주	242	○	○	○	○	○		○	해외건설수주
		고용 창출	119	○	○	○	○	○		○	고용 창출
	국토 개발	사회기반시설 구축	590	○	○	○	○	○		○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역개발(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	164	○	○	○	○	○	보완	○	지역개발(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
		주거환경개선	157	○	○	○	○	○		○	주거환경개선
	사회 공헌	일반 사회봉사활동	27		○	○		○	병합	○	일반 사회봉사활동 (문화체험 포함)
		문화체험 지원활동	2	○	○	○		○			
		기술지원 봉사활동	12		○	○		○			

1) 이미지 평가는 Likert Scale을 사용하며, 부정적 이미지(+1, +2), 보통(+3), 긍정적 이미지(+4, +5)으로 구성되어 평가됨.

	정책 제도	법령 제·개정	126	○		○	○	○	신규	○	법령 제·개정
		정책·제도 시행	935	○		○	○	○	신규	○	정책·제도 시행
		재정지원	261	○		○	○	○	신규	○	재정지원
기술력 및 도덕성	첨단 기술	신기술/신공법 활용	623	○	○	○	○	○		○	신기술/신공법 활용
		에너지 저감	53	○		○		○	병합 및 수정	○	친환경 건설 (에너지 저감 등)
		친환경 건설	84	○	○	○		○			
		랜드마크	11		○	○		○		○	랜드마크 (초고층빌딩 등)
		스마트 건설	220	○	○	○	○	○	신규	○	스마트 건설
	성실 시공	부실시공	17		○	○		○		○	부실시공
		안전사고/재해	205	○	○	○	○	○		○	안전사고/재해
		민원발생	50	○	○	○		○		○	민원발생
	기업 윤리	비리/뇌물	60	○	○	○		○	병합	○	비리/뇌물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투기	30	○		○		○			
		담합	115	○	○	○	○	○		○	담합
		부실경영	130	○	○	○	○	○		○	부실경영
		환경파괴	33	○	○	○		○		○	환경파괴
		법령위반	34	○	○	○		○	신규	○	법령위반
종사자 및 근로환경	종사자	장래성(발전가능성)	12		○	○		○	기술인 및 기능인 구분 분석 필요	○	장래성(발전가능성)
		성실성(책임감)	8		○	○		○			성실성(책임감)
		전문성(기술능력)	73	○	○	○		○			전문성(기술능력)
		도덕성(청렴성)	19		○	○		○			도덕성(청렴성)
	근로 환경	임금	50	○	○	○		○		○	임금
		복리후생	41	○	○	○		○		○	복리후생
		근로시간	14		○	○		○		○	근로시간
		작업안전	26	○		○		○		○	작업안전
		작업환경(3D업종)	26	○	○	○		○		○	작업환경(3D업종)
		고용구조 (고용불안정)	48	○	○	○		○		○	고용구조 (고용불안정)
		인재양성	91	○	○	○		○	신규	○	인재양성

III

대학생의 진로 희망 여부 및 이미지 실태분석

1. 조사개요

- 본 장에서는 미래 건설기술인으로 진출 가능성이 큰 대학생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진로 희망 여부 및 이미지 실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이미지 항목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대학생을 직접적으로 건설기술인이 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 관련 학과와 간접적으로 건설기술인과의 협력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건설 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함.
- 건설 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향후 진로가 건설기술인으로 어느 정도 설정된 학생들로 반드시 건설산업으로 유입이 필요한 미래 인력이며, 비건설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1차적으로 건설산업으로 진로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향후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 지원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인력들임.

-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으로의 진로를 선정할 수 있는 전국의 건설 관련 학과 및 비건설 관련 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건설산업에 대한 진로 희망 여부 및 이미지 실태를 분석함.

- 조사대상은 4년제 이상 종합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의 재학생으로 한정함.
- 이 중 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은 건축, 토목, 기계, 안전, 조경 등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비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은 건설 지원 분야 기술인으로 진출이 가능한 학과(금융, 경제, 행정 등)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함.
- 조사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못하는 관계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됨.
- 조사내용은 산업별 호감도, 진로 희망 여부, 건설산업 이미지 키워드 평가,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함.

<표 3-1>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건설 관련 학과 및 비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 · 건설 관련 학과 363명, 비건설 관련 학과 717명, 총 1,080명
조사 및 분석 기간	· 1차 설문조사 : 건설 관련 학과 · 2021. 03. 01. ~ 2021. 03. 31. (1개월간) · 2차 설문조사 : 비건설 관련 학과 · 2021. 04. 01. ~ 2021. 04. 30. (1개월간)
조사 및 분석 방법	· E-mail 등을 통한 설문조사
조사 및 분석 내용	· 건설산업의 호감도 및 진로 희망 여부 · 건설산업의 이미지 키워드 평가 ·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2. 산업별 호감도 분석

- 본 절에서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산업별 호감도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와 건설산업의 호감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함(<표 3-2>).

- 조사는 타 산업들과의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호감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대분류)를 활용함.
- 학생들에게 호감도 높은 산업 5개를 조사한 후, 산업별 빈도 순위가 가장 높은 산업을 1순위로 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함.

- 건설 관련 학과 재학생들의 호감도 순위 결과를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설산업”, “교육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순으로 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산업은 21개 산업 중 2순위로 조사됨.

- 건설 관련 학과 재학생의 건설산업이 상위권에 랭크된 결과는 건설산업으로의 진로를 설정한 학생들이 대다수이며, 건설산업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입장이기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됨.
- 그러나 건설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건설산업을 첫 번째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설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향후 건설기술인으로서의 유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비건설 관련 학과 재학생들의 결과를 보면,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과 동일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호감을 보였고, 차 순위는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의 순으로 조사됨.

- 건설산업의 경우, 중하위권인 12위의 호감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건설 관련 학과는 건설 관련 학과와 같이 어느 정도 진로 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학과에서 다양한 진로를 고려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라 판단됨.
- 그러나 산업의 호감도가 중하위권인 결과는 향후 대다수 학생이 건설 지원 분야로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건설산업의 미래 인력들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호감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건설산업 호감도 순위 선택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원인은 두 대상 모두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을 많이 유발하는 일이어서”, “뇌물, 비자금 등과 같은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어서”라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남(〈표 3-4〉 참조).

- 긍정적 원인에 대해서는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있어서”, “국민 주거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라는 의견을 보였고,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국민 주거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공공시설들을 건설하고 있어서”라는 의견을 보임(〈표 3-3〉 참조).

■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건설산업의 호감도는 특정 사유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됨. 따라서 건설산업의 호감도 상승을 위해서는 조사된 긍정적 원인은 더욱 부각하고, 부정적 원인은 시급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3-2> 대학생들의 산업별 호감도 순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건설 (순위/명)	비건설 (순위/명)	종합 (순위/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13(64)	10(144)	11(208)
B	광업	21(20)	21(22)	21(42)
C	제조업	11(75)	13(111)	13(186)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111)	9(164)	10(27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5(48)	14(84)	15(132)
F	건설업	2(155)	12(125)	9(280)
G	도매 및 소매업	18(36)	17(61)	17(97)
H	운수업 및 창고업	20(29)	20(32)	20(61)
I	숙박 및 음식점업	12(66)	11(134)	12(200)
J	정보통신업	4(138)	6(269)	5(407)
K	금융 및 보험업	10(98)	7(239)	7(337)
L	부동산업	14(62)	15(83)	14(145)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7)	1(475)	1(692)
N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38)	18(47)	18(8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102)	8(227)	8(329)
P	교육 서비스업	3(141)	2(355)	2(496)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02)	3(309)	4(41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125)	4(302)	3(427)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34)	19(46)	19(80)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6(40)	16(73)	16(113)
U	국제 및 외국기관	6(114)	5(283)	6(397)

<표 3-3> 건설산업 호감도 순위 선정의 긍정적 원인

(단위: 명)

항목	건설	비건설	종합
국민 주거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78	172	250
해외건설수주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28	37	65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있어서	87	131	218
도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및 경관을 창조하고 있어서	67	125	192
초고층건물, 대형교량 등을 안전하게 만드는 전문기술을 지니고 있어서	45	108	153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공공시설들을 건설하고 있어서	57	140	197
기타의견	1	4	5
합계	363	717	1,080

<표 3-4> 건설산업 호감도 순위 선정의 부정적 원인

(단위: 명)

항목	건설	비건설	종합
다른 산업에 비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어서	53	113	166
미래에 대한 장래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27	30	57
환경파괴, 민원발생 등을 많이 유발하고 있어서	50	52	102
첨단산업이 아닌 후진적인 일이어서	19	13	32
기술발전의 가능성이 없어서	19	14	33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을 많이 유발하는 일이어서	95	303	398
뇌물, 비자금 등과 같은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어서	96	177	273
기타의견	4	15	19
합계	363	717	1,080

3. 건설 분야로의 진로 희망

- 대학생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진로 희망 여부를 조사한 <그림 3-1>의 결과를 보면,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의 건설 분야 취업 및 대학원 진학 희망 비율은 각각 22%, 9%로 나타났으며,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의 건설 분야 취업 및 대학원 진학 희망 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현재 대학생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기피 현상은 호감도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시 향후 건설기술인의 인력수급은 불투명할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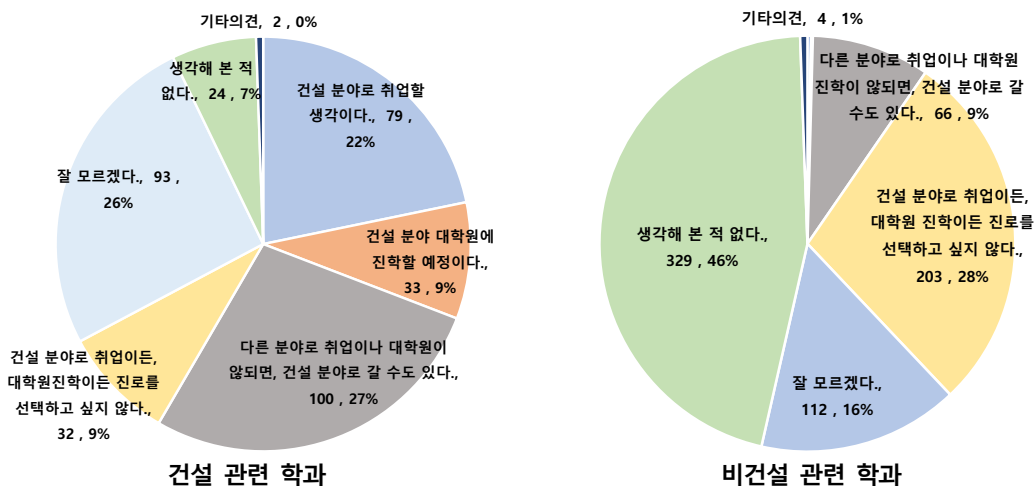
- 특히, 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들은 호감도 순위가 2위로 조사되었으나 상당수가 진로 선택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타 산업으로 진로를 희망한 사유를 조사한 <표 3-5>의 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적성에 맞지 않고, 소질이 없어서” 라고 응답하였고,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3D업종이라서” 라는 이유가 그 뒤를 이음.

- 특이한 점은 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사유가 건설산업에 대한 적성 및 소질, 3D산업이라는 점임.
- 이는 현재 건설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교육을 받는 중임에도 흥미를 갖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 판단됨.

■ 이에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될 시, 건설 분야로의 진로 희망 의향을 추가적으로 <표 3-6>과 같이 조사함.

- 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들은 “건설산업에 대한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된다면, 건설 분야로 취업 또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건설업에 대한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더라도, 건설 분야로 취업 또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 대학생의 건설 분야로의 진로 희망 여부

<표 3-5> 타 산업으로의 진로 희망 이유

(단위: 명)

항목	건설	비건설	종합
적성이 맞지 않고, 소질이 없어서	61	461	52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3D업종이라서	34	68	102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파괴 산업이라서	3	2	5
첨단산업이 아니고, 기술발전의 가능성이 없어서	10	9	19
미래에 대한 장래성이 없는 직업이라서	17	25	42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을 많이 유발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14	37	51
부모님의 반대로	2	5	7
TV나 영화 등에서 뇌물, 비자금 등의 비리가 많은 직업으로 소개되어서	6	10	16
기타의견	2	27	29
합계	149	644	793

- 그러나, 비건설 관련 학과의 경우, 진로 선택의 범위가 폭넓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건설업에 대한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된다면, 건설 분야로 취업 또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있다.”라는 의견이 차 순위로 나타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판단됨.
- 그러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더라도 불구하고 진로 선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은 건설산업이 진로로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여전히 시급함을 알려주는 자료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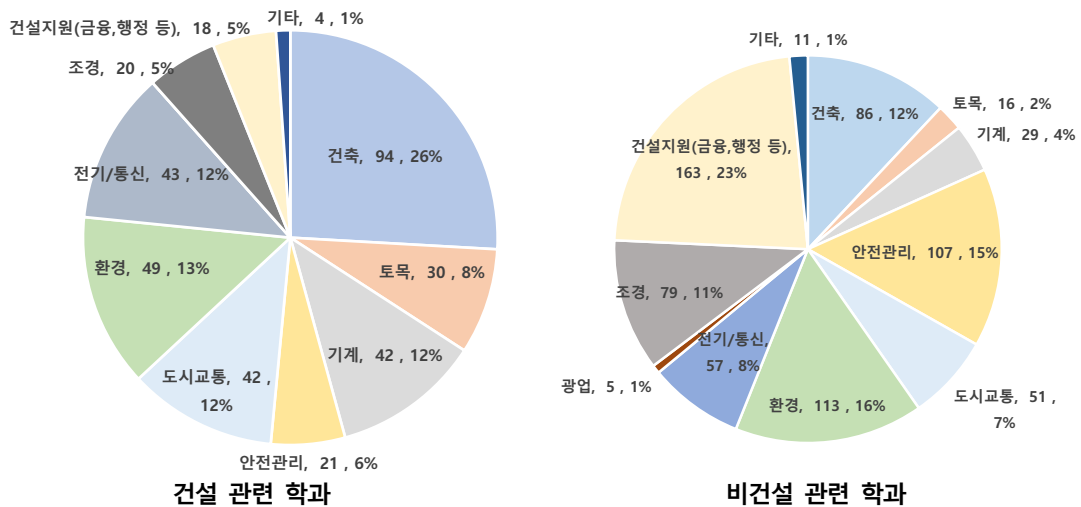
<표 3-6> 이미지 개선 시 진로 희망 여부

(단위: 명)

항목	건설	비건설	종합
건설산업에 대한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된다면, 건설 분야로 취업 또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있다.	53	73	126
건설산업에 대한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더라도, 건설 분야로 취업 또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다.	46	366	412
잘 모르겠다.	47	198	245
기타의견	3	7	10
합계	149	644	793

- 대학생들의 세부 건설 분야의 진로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들은 건축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으며, 비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들은 건설지원(금융, 행정 등)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3-2> 참조).

- 이는 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건설산업의 다양한 분야 중 특정 분야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비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들은 건설지원 분야의 기술인으로 유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임.
- 따라서 대상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의 수급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림 3-2> 대학생의 건설산업 이미지 인식 경로

4. 건설산업의 이미지 평가

■ 선행연구(Shin etc., 2020)에서는 기존 이미지 키워드를 도출한 선행연구(Shin & Son, 2014)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언론 매체를 선정하여 최근 보도기사 8,886건을 분석함.

- 이를 통해 대분류 3가지, 중분류 9가지, 소분류 35가지의 이미지 키워드를 도출함. 또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선정된 이미지 키워드의 검증을 수행하여 도출된 키워드들의 신뢰성을 확보함.
- 이미지 키워드는 해당 키워드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될 수가 없는 주관적인 요소임.
- 다시 말해서, “노가다”란 단어가 부정적일 수 있으나 누군가가 평가했을 때, 부정적인 이

미지가 해결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임.

- 또한, 긍정적이라 생각되는 키워드도 누군가가 평가했을 때, 긍정적 이미지가 아닌 부정적 이미지로 평가¹⁾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조사된 이미지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미지 평가를 실시함.

- 이미지 평가는 35가지 항목에 대해 수행되고, Likert Scale을 사용하며, 부정적 이미지(+1, +2), 보통(+3), 긍정적 이미지(+4, +5)으로 구성되어 평가됨.

■ <표 3-8>의 대분류 평가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국가 및 사회 기여도’, ‘종사자 및 근로환경(관리직)’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으나 ‘기술력 및 도덕성’, ‘종사자 및 근로환경(생산직)’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과거부터 각인된 건설산업 및 생산직 근로자(기능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그대로 각인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며, 과거부터 발생해 온 사건/사고와 생산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대학생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됨.

■ 중분류 항목을 보면, 재학중인 학과에 관련 없이 ‘성실시공’, ‘기업윤리’, ‘근로환경(관리직/생산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됨.

■ 소분류 항목을 보면,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비리/뇌물(부동산 투기)’, ‘법령위반’, ‘부실경영’, ‘부실시공’, ‘환경파괴’ 등의 항목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비리/뇌물(부동산 투기)’, ‘부실시공’, ‘안전사고/재해’, ‘법령위반’, ‘부실경영’ 등의 항목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됨.

1) 예시 : “고용 창출”이란 키워드는 긍정적 키워드이나 건설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닐 수 있음.

<표 3-8> 대학생의 건설산업 이미지 평가 결과

대분류		①	②	중분류	①	②	소분류	①	②
국가 및 사회 기여도	3.45	3.48	경제발전	3.61	3.67	경제성장	3.66	3.68	
						경기회복	3.45	3.46	
						해외건설수주	3.75	3.80	
						고용 창출	3.56	3.72	
			국토개발	3.79	3.88	사회기반시설 구축	3.75	3.88	
						지역개발(재개발/재건축/도시 재생 등)	3.82	3.88	
						주거환경개선	3.81	3.88	
			사회공헌	3.32	3.32	일반 사회봉사활동(문화체험 포함)	3.39	3.37	
						기술지원 봉사활동	3.25	3.26	
			정책 /제도	3.07	3.07	법령 제·개정	3.05	3.06	
						정책·제도 시행	3.08	3.08	
						재정지원	3.09	3.08	
신기술/신공법 활용	3.76	3.78							
기술력 및 도덕성	2.84	2.75	첨단기술	3.79	3.82	친환경 건설(에너지 저감 등)	3.84	3.88	
						랜드마크(초고층빌딩 등)	3.72	3.75	
						스마트 건설	3.85	3.87	
						부실시공	2.33	2.16	
			성실시공	2.42	2.23	안전사고/재해	2.40	2.16	
						민원발생	2.54	2.36	
						기업윤리	2.31	2.21	비리/뇌물(부동산 투기 포함)
			담합	2.46	2.34				
			부실경영	2.32	2.20				
			환경파괴	2.36	2.26				
			법령위반	2.28	2.19				
			종사자 및 근로환경	3.14	3.00	종사자	3.44	3.37	장래성(발전가능성)
성실성(책임감)	3.44	3.40							
전문성(기술능력)	3.78	3.79							
도덕성(청렴성)	3.12	2.96							
근로환경	2.83	2.63				임금	3.07	2.92	
						복리후생	2.94	2.70	
						근로시간	2.72	2.63	
						작업안전	2.69	2.40	
						작업환경(3D업종)	2.73	2.52	
						고용구조(고용불안정)	2.69	2.50	
						인재양성	2.99	2.77	
						종사자	3.29	3.19	장래성(발전가능성)
성실성(책임감)	3.35	3.30							
전문성(기술능력)	3.50	3.46							
도덕성(청렴성)	3.15	3.02							
기능인	2.97	2.81	근로환경	2.66	2.44	임금	2.87	2.71	
						복리후생	2.73	2.46	
						근로시간	2.60	2.44	
						작업안전	2.49	2.20	
						작업환경(3D업종)	2.58	2.32	
						고용구조(고용불안정)	2.58	2.34	
						인재양성	2.77	2.59	

주 1) ① : 건설 관련 학과, ② : 비건설 관련 학과

- 특이한 점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관리직 근로자의 ‘도덕성(청렴성)’, ‘임금’ 항목과 생산직 근로자의 ‘장래성(발전가능성)’ 항목이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된 것에 비해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해당 항목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임.
- 이는 건설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건설 관련 학과 재학생 측면에서는 해당 부분의 이미지가 과거에 비해 해결되었다는 시각과 외부에서 보고 있는 비건설 관련 학과 재학생 측면의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대상별로 상충되어 나타난 결과라 판단됨.

■ 이러한 평가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과와 관련 없이 대부분 특정 이미지 항목에서 공통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고, 3가지 이미지 항목에서만 상반된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었음.

- 이는 미래 건설기술인이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특정 항목에 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결과로써 이들 특정 이미지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임.
- 또한, 과거부터 건설 관련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의 근로환경 부분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건설 관련 기관에서 대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시행 중이며, 활동들이 현재 대학생들의 부정적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지를 4장에서 파악하고자 함.

IV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본 장에서는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 건설 관련 협회, 학회 및 연구기관에서 수행 중인 대학생 대상의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와 필요성을 파악하고, 활동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함.

- 이는 대학생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을 구축할 시 방향성 설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건설산업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음.

1. 대학생 대상 이미지 개선활동의 종류

- 선행연구(Shin etc., 2021)에서 조사된 국내 건설 관련 기관¹⁾의 이미지 개선활동 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미지 개선활동을 <표 4-1>과 같이 추출함.

- 194개 활동 중 12개 활동이 기관 홍보, 사회공헌, 고용 활성화,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표 4-1> 대학생 대상 이미지 개선활동의 종류

기관 종류	이미지 개선활동	목적
정부기관	Homes(SNS 활동)	정책 홍보
공공기관	장학금 지원 사업	사회 공헌
건설 관련 협회 및 업계	건설 인재 채용 콘서트	고용 창출
	건설 장학금	사회 공헌
	일자리 정보센터 운영	고용 창출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운영	교육·훈련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고급인력 양성	교육·훈련
연구기관	UST-KICT School	교육·훈련
	연구원 견학	기관 홍보
	CM 아카데미	교육·훈련
	장학금 지원 사업	사회 공헌
	KICEM Mentoring(여성건설인 육성)	교육·훈련

1) 중앙 정부 및 공공기관 3개소, 건설 관련 협회 5개소, 건설회사 23개소, 연구기관 3개소

- 이러한 활동들은 앞서 분석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성실시공, 기업윤리, 근로환경)와 관계된 활동은 미흡한 수준이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활동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이미지 개선활동의 인지도 및 필요성

■ 앞서 조사된 이미지 개선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표 4-2>와 같이 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들은 363명 중 138명(38%)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관별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참여할 의사를 보임.

- 또한, 비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의 경우, 717명 중 266명(37%)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관별 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사회공헌이나 기관 홍보 측면에서 활동들이 수행되어 나타난 결과라 판단됨.

<표 4-2>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활동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항목	건설	비건설	총합
잘 알고 있고, 직접 참여한 경험도 있다.	17	8	25
잘 알고 있지만, 참여한 경험은 없다.	52	42	94
알고 있는 정도이고, 기회가 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138	190	328
알고 있는 정도이나, 참여할 의사는 없다.	97	188	285
전혀 모르고, 참여할 의사도 없다.	51	266	317
기타의견	8	23	31
합계	363	717	1,080

■ 추가적으로 상기와 같은 기관별 이미지 개선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표 4-3>과 같이 대학생들은 이미지 개선활동이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홍보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대학생들의 이미지 개선활동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기관별 이미지 개선활동의 시행은 필요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선활동들이 대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됨.

<표 4-3>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활동에 대한 필요성

항목	건설	비건설	종합
건설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홍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86	163	249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	162	322	484
개선활동이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필요 없다.	42	40	82
개선활동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이미지 개선효과가 없으므로 필요 없다.	22	54	76
개선활동이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 지 모르겠다.	50	129	179
기타의견	1	9	10
합계	363	717	1,080

3.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표 4-4>의 결과와 같이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학생에 대한 이미지 개선활동 전담주체의 불명확 또는 부재”로 조사되었고,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개선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홍보 미흡”으로 나타남.

- 차 순위로는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개선활동에 대한 대학홍보 미흡”, “학생들을 위한 개선활동 프로그램 절대 부족”로 나타났고,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학생에 대한 이미지 개선활동 전담주체의 불명확 또는 부재”, “학생들을 위한 개선활동 프로그램 절대 부족”으로 조사됨.

<표 4-4> 대학생 대상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

(단위: 명)

항목	건설	비건설	종합
대학생들을 위한 개선활동 프로그램 절대 부족	123	278	401
개선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홍보 미흡	139	342	481
대학생에 대한 이미지 개선활동 전담주체의 불명확 및 부재	155	297	452
개선활동 내용이 이미지 개선효과가 적은 항목들로 구성	117	166	283
이미지 개선활동을 위한 재정적 투자 부족	104	176	280
이미지 개선활동 결과에 대한 성과관리 미흡	83	171	254
기타의견	5	4	9
합계	726	1,434	2,160

- 이는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이미지 개선활동에 대한 주체가 부재하고,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어 대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나타난 결과라 판단됨.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미지 개선활동의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표 4-5>의 결과와 같이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학생에 대한 이미지 개선활동 전담주체의 규정 및 전문화”로 조사되었고,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학생들을 위한 개선활동 프로그램 확충”으로 나타남.**

- 차 순위로는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개선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홍보 강화”, “학생들을 위한 개선활동 프로그램 확충”로 나타났고,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개선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홍보 강화”, “이미지 개선효과가 큰 활동내용 발굴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아이디어 공모”로 조사됨.
- 이는 현재 대학생들이 건설산업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지 개선활동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됨.
- 이에 이미지 평가 및 개선활동을 위한 주체 설정이 필요하며, 대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4-5> 대학생 대상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활동의 개선사항

(단위: 명)

항목	건설	비건설	종합
대학생들을 위한 개선활동 프로그램 확충	130	321	451
개선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홍보 강화	131	295	426
대학생에 대한 이미지 개선활동 전담주체 규정 및 전문화	144	207	351
이미지 개선효과가 큰 활동내용 발굴을 위한 대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공모	118	245	363
이미지 개선활동을 위한 재정적 투자 확대	113	195	308
이미지 개선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피드백	87	168	255
기타의견	3	3	6
합계	726	1,434	2,160

-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이미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표 4-6>과 같이 “각종 건설 분야 체험활동”과 “분야별 건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앞서 조사된 대학생 관련 이미지 개선활동이 일부 교육 활동은 진행되고 있으나 체험활동 부재 및 특정 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결과라 판단됨.
- 따라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운영 주체를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표 4-6> 대학생들 위해 필요한 이미지 개선활동

(단위: 명)

항목	건설	비건설	종합
건설업 자체에 대한 홍보활동	94	193	287
건설현장 견학활동	113	215	328
각종 건설관련 경진대회	82	149	231
각종 건설분야 체험활동	158	322	480
건설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130	247	377
건설 장학제도 운영	113	220	333
각종 건설관련 사회봉사활동	32	86	118
기타의견	4	2	6
합계	726	1,434	2,160

5. 벤치마킹 방안

- 본 절에서는 국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미지 개선활동을 분석함.

- 조사대상은 국내와 가장 유사한 건설 문화와 사업 프로세스를 지닌 일본 사례로 설정함.

- 현재 일본은 국내와 같이 건설산업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면이 과거부터 존재하여 청년층의 유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관에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들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일본은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 인재 확보·육성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기관 3개(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와

건설 관련 협회 59개가 소속되어 있으며, 국토교통성의 부동산·건설경제국(건설 시장 정비과)과 건설업 진흥기금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해당 협의회는 <그림 4-1>과 같이 건설산업의 일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건설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설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계층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등)로 제공하고 있음.

-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그림 4-2>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을 공종별로 동영상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고, 실무 시공 경험 연수를 통해 전문가로서 현장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현장관리자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여 관리자로서 하루 동안의 역할 및 업무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동안 기술 체험 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건설산업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들은 앞서 조사된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건설 분야 체험활동” 및 “분야별 건설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써 향후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림 4-1> 건설산업 인재 확보·육성 추진 협회회의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활동

- 추가적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건설산업의 특정 부정적 이미지 제고 및 고용 확보를 위한 PR 동영상 제작하여 배포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국내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건설산업의 공종별 기초지식 동영상 제작 및 배포



건설기술인의 하루 일과 관련 동영상 제작 및 배포

<그림 4-2> 건설산업 인재 확보·육성 추진 협의회의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활동

V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의 미래 인력수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써 건설기술인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진로 희망 여부 및 이미지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인력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新 이미지 키워드를 활용하여 건설 관련 학과 및 비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의 부정적 이미지가 어떠한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를 도출함
- 또한, 국내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향후 국내 건설 관련 기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미지 개선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하였고, 적절한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함.

-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설산업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21가지 산업 중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는 2위,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는 12위로 조사되었고, 호감도 선정의 부정적 원인은 두 계층 모두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을 많이 유발하는 일이어서”, “뇌물, 비자금 등과 같은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어서”라는 의견으로 나타남.
- 둘째, 이미지 평가 키워드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이미지 실태를 분석한 결과, 건설 관련 학과 및 비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부정적 이미지는 ‘성실사공’, ‘기업윤리’, ‘근로환경’인 것으로 분석됨.
- 셋째,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학생 대상의 기관별 이미지 개선활동을 분석한 결과, 기관 홍보, 사회공헌, 고용 활성화,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12개 활동이 수행되고 있었고, 조사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성실사공, 기업윤리, 근로환경)와 관계된 활동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넷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미지 개선활동의 문제점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학생에 대한 이미지 개선활동 전담주체의 불명확 또는 부재”로 조사되었고,

비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은 “개선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홍보 미흡”임을 파악함.

- 다섯째, 대학생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구축(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함.

■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학생의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과거부터 인식되어 온 이미지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래 건설기술인의 수급체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학생의 건설산업 이미지를 토대로 각 기관별 개선활동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기관별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국내와 유사한 건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젊은 인력들이 기피하는 3D산업이며, 이를 과거부터 인지하여 기관별 특성을 살린 활동들을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적절한 활동들이 국내 기관별로 벤치마킹된다면, 국내 대학생들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조사된 동영상 제작 및 배포 활동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면 활동 자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간접적으로나마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 현장의 체험활동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의 벤치마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해당 기관별로 유입하고자 하는 인식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책적 지원방안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과거부터 건설산업의 이미지 해결과 젊은 인력 유입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정부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역할에 매우 무게가 실려 있음.
- 따라서 국내에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개선할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설문 부수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젊은 건설기술인 측면의 이미지 실태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이에 향후 본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방안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신원상 (선임연구원, wsshin@cepik.re.kr)

오치돈 (연구위원, chidon@cepik.re.kr)

곽한성 (선임연구원, hsgwak@cepik.re.kr)

배상희 (연구원, shbae@cepik.re.kr)

미래 건설기술인의 진로 선택 및 이미지 개선방안

2021년 6월 인쇄

2021년 6월 발행

발 행 인 김 경 식

발 행 처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8층(논현동, 건설기술인회관)

TEL (02)6204-4332

FAX (02)6204-4341

홈페이지 www.cepik.re.kr

인 쇄 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2021

※ 본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20R1F1A1048137).

